

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 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912천 km ²	G D P	2,601억 달러 (2015년)
인구	30.6 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 D P	8,494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Bolivar Fuerte (BsF)
대외정책	반미 좌파동맹 추진	환율(달러당)	13.72 (2015년)

- 베네수엘라는 남미 북부 및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, 콜롬비아, 브라질, 가이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.5배 수준이며, 인구는 2015년 기준 30.6백만 명임.
- 베네수엘라는 2015년 기준 원유매장량 세계 1위, 원유생산량 세계 10위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, 원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14년 간 장기집권 중이던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2013년 마두로 정부가 출범하였으나, 여소야대 정국 및 경제위기로 인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전개되면서 정치불안이 심화되고 있음.
- 높은 범죄율로 고질적인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야권 주도의 대규모 시위와 식료품, 의약품 등의 부족현상으로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
- 베네수엘라는 반미 좌파동맹 노선 추구로 미국과는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나, 중남미 좌파 국가와는 정치·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제성장률	5.6	1.3	-3.9	-6.2	-10.0
재정수지 / GDP	-15.6	-14.3	-16.8	-23.1	-25.7
소비자물가상승률	21.1	40.6	62.2	121.7	475.8

자료: IMF.

□ 2016년 마이너스 10% 수준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

-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수출의 95%, 정부 재정수입의 40%를 차지하는 등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-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원유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-3.9%, -6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2016년에도 저유가 지속, 원유생산량 감소, 민간 소비 축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0%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

- 에너지보조금 등 막대한 사회보장성 지출과 주변국에 대한 저가의 원유 공급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매년 GDP 대비 10%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중임.
- 차베스 (Chavez)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마두로 (Maduro) 대통령 또한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, 경제침체 심화 및 저유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0% 중반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00% 후반 수준까지 폭등 전망

-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수입 감축, 주요 제조업체의 공장가동 중단으로 국내 생산물품 감소,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화폐 발행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현상이 지속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120%를 상회하였으며, 2016년에는 식료품 및 의약품까지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0% 후반 수준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

-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수출 및 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유가 및 원유 생산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임.
-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수출의 95%, 정부 재정수입의 40%를 차지하고 있음.

□ 기업경영환경 등 취약

- 베네수엘라의 2016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(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)는 189개국 중 186위에 불과하여 기업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함.
- 또한 베네수엘라는 도로, 철도, 전력 등 주요 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베네수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(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-2017) 인프라 부문에서 138개국 중 121위에 불과하며, 세부 항목별 순위는 도로 119위, 항공 129위, 전력공급 133위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에너지 자원 부국

- 베네수엘라는 2015년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1위 (매장량 3,009억 배럴, 세계 점유율 17.7%), 천연가스 세계 8위 (매장량 198.4조 ft^3 , 세계 점유율 3.0%)의 에너지 자원 부국임.
- 또한 베네수엘라는 2015년 기준 세계 10위의 원유 생산국으로, 일일생산량은 263만 배럴을 기록하여 세계 점유율 3.1%를 차지함.

□ 광물자원 풍부

- 베네수엘라는 원유, 천연가스 이외에도 보크사이트, 철광석,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특히 알루미늄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보크사이트는 2015년 말 기준 3.2억 톤을 보유하여 세계 12위임.

다. 정책성과

□ 물가안정 정책 실패

-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,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어 2015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세자리 수대 (122%)에 도달함.
- 2016년에는 외환부족으로 수입물량 감소, 생필품 부족 심화에 따라 3월 마두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40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원유 생산량 감소 및 해외직접투자 부진

- 베네수엘라는 원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, 원유 생산량 확대 및 해외투자 유치에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함.
- 그러나 하루 3백만 배럴 이상을 상회하던 원유 생산량은 전력 부족 및 투자 축소 등으로 2015년에는 263만 배럴로 감소하였고, 2016년 2/4분기에는 223만 배럴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, 2016년 말에는 210만 배럴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.
- 연도별 원유생산량 추이(배럴/일): 303만 (2009년) → 276만 (2011년) → 268만 (2013년) → 263만 (2015년)
- 또한 열악한 기업경영환경 및 정치·사회 불안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 감소와 투자회수 및 철수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있음.
- 2012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60억 달러에 달했으나, 2014년 3억 달러에 불과하였고, 2015년에는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 상 수 지	2,586	4,604	3,598	-20,360	-11,205
경 상 수 지 / G D P	0.8	2.0	1.7	-7.8	-3.4
상 품 수 지	31,956	31,598	27,234	768	651
수 출	97,873	88,749	74,710	37,232	29,744
수 입	65,917	57,151	47,476	36,464	29,093
외 환 보 유 액	9,900	6,038	7,457	6,324	3,923
총 외 채 잔 액	134,640	132,362	135,767	140,535	141,535
총 외 채 잔 액 / G D P	35.4	58.0	63.1	54.0	42.4
D . S . R .	13.1	20.9	29.3	59.3	65.0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

- 베네수엘라는 원유 의존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되며, 2014년까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추세가 지속되었음.
- 2015년에는 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7.8% 수준의 적자로 전환되었음.
- 2016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수입 급감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3% 중반대 수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수출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급감

- 저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, 열악한 기업경영환경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축소, 외채상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였음.
- 2012년 외환보유액은 9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, 2016년 6월에는 46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고, 금년 말에는 30억 달러 후반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 6월 말 기준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1.3개월 수준에 불과함.

□ 외채건전성 악화 및 디폴트 우려 고조

- 정부지출 증가와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한 해외원조 등으로 총 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,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54%를 기록하는 등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임.
- 또한 2015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이 59.3%를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60%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건전성 악화가 전망됨.
- 베네수엘라는 외환보유액 감소, 경제침체 심화, 외자유입 축소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, 저유가 지속시 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.
-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경제회복 및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 및 원유생산량 증가, 정치불안 해소, 경제 및 제도개혁, 채무재조정 (debt restructuring)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.

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1. 정치 안정

□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정치불안 심화

- 2013년 3월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후 4월 실시된 선거에서 집권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(PSUV)의 마두로 후보가 야권통합연대(MUD)의 카프릴레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.
-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,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왔으며, 대통령 당선 이후 차베스 정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.
- 마두로 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과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영향으로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야권이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등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- 야권은 2015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총 167석 중 112석을 차지하여 압승하였음.

-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야권은 2017년 1월 10일 이전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를 통한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추진하고 있으나, 선관위가 최근 국민소환 투표 절차를 중단하는 등 국민소환 투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비협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.

2. 사회 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정치불안 및 경제위기로 사회 불안정 심화

-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야권 주도의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2016년 10월 28일에는 야권이 전면 파업 시위를 주도하였음.
- 야권은 향후에도 신속한 국민소환 투표 실시 압박을 위해 대규모 시위를 주도·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400%를 상회하는 물가폭등과 수입감소에 따른 식료품, 의약품 부족 현상으로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,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생필품 확보를 위해 콜롬비아, 브라질 국경을 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음.

□ 고질적인 치안불안 지속

- 베네수엘라는 피살율이 중남미 국가 중 엘살바도르에 이어 제2위에 해당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함.
- 베네수엘라 피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90명이며, 엘살바도르 피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103명임.
-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절대빈곤계층 비율이 상승(2012년 27.2%→ 2015년 33.1%)하고, 암시장 및 밀수가 확대되고 있음.

3. 국제 관계

□ 미국과 정치적 대립 지속, 그러나 경제 교류는 활발

- 베네수엘라는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반미 좌파동맹을 추진하였고, 2013년 마두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 유지로 인해 미국과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음.

- 2016년 3월 마두로 정부는 경제위기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경제 전쟁으로 심화되었다고 비난하는 등 현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내부가 아닌 미국 등 외부공격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.
- o 그러나 미국은 201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국(전체 수출액 중 비중 38%)이자 수입국(29%)으로 활발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 수행

- o 베네수엘라는 2005년 페트로카리베(PetroCaribe)를 설립하고, 이들 국가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여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치·경제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PetroCaribe는 베네수엘라 외 카리브해 연안 17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연대로,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지원받은 원유에 대하여 대금의 60%는 먼저 지급하고, 나머지 40%는 저리로 40년간 상환함.
- o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인해 페트로카리베 회원국 앞 원유공급 감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카리브해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중국과는 우호관계 지속 유지

- o 중국과는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, 마두로 대통령도 2015년 9월 중국을 방문하였음.
- o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제1위 차관공여국으로, 2015년에도 중국은 베네수엘라 앞 150억 달러 차관제공을 약속하였으며, 201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제3대 수출국(17%)이자 제2대 수입국(19%)으로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는 취약한 상황

- o 2016년 6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27.9억 달러 중 연체액이 2.3억 달러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취약함.

-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(PDVSA)는 외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자 앞 70억 달러 채권스왑(bond swap)을 제안하였으며, 이중 28억 달러 채권의 만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에 양측이 합의함(2016년 10월).
- 한편, PDVSA는 2016년 10월 외채원리금(16억 달러)을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정상 상환한 바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7등급 (2016.10)	7등급 (2015.10)
S&P	CCC (2015. 2)	CCC+ (2014. 9)
Moody's	Caa3 (2016. 3)	Caa3 (2015. 1)
Fitch	CCC (2016. 7)	CCC (2015. 7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65년 4월 29일 (북한과의 수교: 1974년 10월 24일)
- 주요 협정: 경제과학기술협정('93), 외교관및관용사증면제협정('94), 문화협정('94), 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협약('06), 사증면제협정('07)
- 해외직접투자현황: 2016년 9월말 기준 14건, 67,342천 달러 (누적)
- 교역규모

<표 4> 한·베네수엘라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'16. 9월	주요 품목
수 출	443	236	449	286	철강, 산업기계, 자동차부품 등
수 입	51	15	21	16	알루미늄, 석유제품, 동제품 등
교역규모	494	251	470	302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저유가 지속, 원유생산량 감소, 민간 소비 축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0% 수준으로 예상되어, 베네수엘라는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수입물량 축소, 주요 제조업체의 공장가동 중단,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화폐 발행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2016년에는 400%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경제침체 심화, 정부 재정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% 중반 수준으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경상수지 적자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수입 급감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3% 중반대 수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, 야권을 중심으로 시위 및 파업 전개로 인해 정치·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, 경제침체로 인해 약탈이 빈발하는 등 고질적인 치안불안이 심화되고 있음.
- 베네수엘라는 외환보유액 감소, 경제침체 심화 등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, 저유가 지속시 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.

선임조사역 박대원 (☎02-6255-5705)
E-mail: parkdw@koreaexim.go.kr